

# 광주비엔날레 20년 발자취를 돌아보다



내년 '1980~2014' 특별전  
현대사, 미술로 해석  
총괄큐레이터 윤범모 교수

광주비엔날레가 내년 창설 20주년을 맞아 특별전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전시 총괄 큐레이터를 선임하고 프로젝트 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995년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제1회 행사를 치른 광주비엔날레는 내년 제10회 행사로 모건 총감독이 기획하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와 별도로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9일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에 따르면 내년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산은 전액 시비다.

20주년 기념 행사는 특별전과 국제학술회의 등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거리미술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전은 모두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8월부터 11월까지 100일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1980~2014전'(가제)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현대사를 미술로 해석하는 이 전시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모두 5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근본으로 국제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가 내년 창설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 사진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지난 1995년 열린 제1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크초&알렉시스 레이바의 작품인 '잊어버리기 위하여'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전시 기획은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의 큐레이터가 맡는다. 전시 총괄 큐레이터는 한국큐레이터협회장인 윤범모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동국대와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윤 교수는 계간미술 기자, 예술의전당 미술부장, 한국근대미술사학회 회장, 한국미술감정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 집행위원, 제2회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 등으로 광주와 인연을 맺기도 했다.

국제학술회의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3~8월에는 매달 한차례 국내·외 미술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비엔날레(9~11월)가 열리는 6일

동안에는 재단과 미술관, 광주 플리 등 곳곳에서 매일 세미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국제학술회의 기획은 아르코 전시예술감독 등을 역임한 백지숙씨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 큐레이터로 참여하기도 했다.

거리미술 퍼포먼스는 광주 오월길에서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에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는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총괄 기획에는 김상윤 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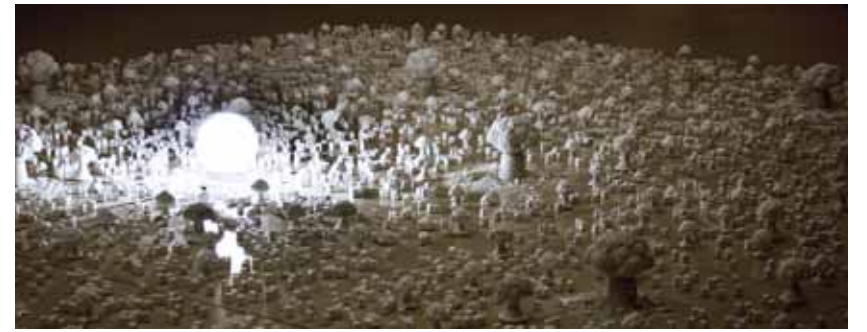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내년 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왔다.

이 밖에도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등 모두 3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13일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 비엔날레와 주제를 넘나들며 서로 '원인'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가 세계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13일 재단에서 2014광주비엔날레(총감독 제시카 모건) 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정기 작 'City of Destroy'

## 세계 미술작품 '한자리에'

‘국제현대미술 광주아트비전’ 15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

(사)현대미술 에보코(이사장 최석현)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15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제4회 국제현대미술 광주아트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10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14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조각,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을 소주제별로 전시한다.

전시 조직위원장은 호남대 이정룡 예술대 학장이, 총감독은 조선대 김익모 교수가 맡았다.

파트1(파트 감독 오남석)에서는 '고백의 정원'을 주제로 회화 및 사진이 전시된다. 고백의 정원은 작가들의 조형언

어가 곧 고백의 언어라는 의미와 함께 외부세계와 소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각과 설치미술을 선보이는 파트2(파트 감독 신호윤)는 '조금, 늦지않은'을 주제로 진행된다.

파트3(파트 감독 진시영)에서는 'Real moving image'를 주제로 미디어 아트 장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비디오 아트를 선보인다.

'국제현대미술 광주아트비전'은 (사)현대미술 에보코가 지난 2007년부터 광주비엔날레 휴식 연도마다 개최하고 있는 비구상 국제미술 전시회다. 문의 062-222-805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시립극단 '오셀로' 공연 리뷰

중간 휴식시간 없이 2시간 20분간 이어진 공연은 흥미로웠다. 뮤지컬은 노래와 춤 등 볼거리가 어우러지면서 2시간 30분 이상 공연되기도 하지만 정통연극의 경우 2시간을 넘어서면 집중력을 갖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된 광주시립극단의 '오셀로'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붙잡아둔 데 성공한 작품이다.

관객들은 이야기의 세치 혀에 놀아나 질투에 눈이 멀고, 결국 아내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고 마는 오셀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몇몇 관객이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지만 의외로 일반 관객들의 몰입도도 높았다.

연출을 맡은 최영화씨는 시간의 흐름대로 스토리를 끌고 가는 대신 오셀로, 데스데모나, 이아고 세 주인공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일부에서는 다소 난해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관객을 긴장시키며 작품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줄거리가 쉽게 잡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품도 좋지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작품들을 접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이브 연주와 드로잉 퍼포먼스, 롬바 등



### '2시간20분' 몰입도 높았지만 다양한 장르 결합은 과욕

다양한 장르의 결합은 시도는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단 드로잉퍼포먼스는 작품 속에 전혀 녹아들지 못하고 오히려 극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굳이 필요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라이브 연주와 이미지씨의 노래가 어우러진 음악의 경우 앞전의 공백을 메우고 작품의 분위기를 장악하며 중요 역할을 했다. 하

지만 노래에 묻혀 극의 중요 흐름마다 등장, 메시지를 던지는 '마음의 지배자'의 대사 전달이 방해받고, 구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 피로감을 느끼게 한 점은 아쉬웠다.

솔직히 최근 광주 배우들의 연기에 만족도가 낮았던 터라 배우들에 대한 기대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오셀로'는 광주 배우들의 새로운 발견이 반가웠다. 광주

대표 배우인 오셀로의 박규상씨 연기와 함께 이아고 역의 송정우씨가 눈에 띄었다. 그는 소극장 무대에서와는 다른 연기로 대극장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탈리아 역의 김경숙씨도 안정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또 단출하지만 의미있는 무대 세트와 조명 디자인도 눈에 띄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미술상 임남진씨 수상... 탕화·전통민화 접목

제19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로 불교의 탕화와 전통 민화를 접목한 작업을 해온 임남진씨가 선정됐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임남진



'풍속도'

(사)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우제길)는 지난 6일 광주YMCA 무

진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임씨를 올해 수상작가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에서 태어나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임씨는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2008년)로 활동했으며, 하정음미술상(2012년), 제4회 신세계미술제 장려상(2001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전(1998년) 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임씨는 "선배들이 주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상인만큼 광주미술상의 위상과 작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더욱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부터 중진에 이르는 선배 미술인들이 후배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전국 최초로 결성한 단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보약, 흥삼은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